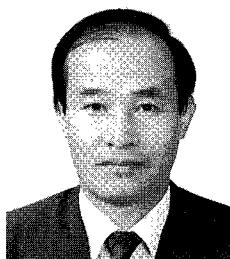


## 가금위생 해외뉴스

### 오경록 ▶ 코너



오 경 록  
남덕 쌔니테크

#### □ 도계육 항생물질 잔류부위

양계산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질병예방은 더욱 중요하므로 그 예방대책으로 사료첨가물 등의 사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92년도부터 도계검사가 실시되고 식용에 이용되는 닭도 소, 돼지와 같이 1수씩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검사는 종래의 소와 돼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생물질 잔류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씨스오가현 중소가축시험장은 항생물질이 도계육의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잔류하는지 검토하였다.

공시약제로는 항균제, 항원충제로서 많이 사용되는 살파디메톡신을 경구투여하고 날짜경과에 따라 다리, 가슴, 신장, 지방조직 그리고 혈청 중의 잔류상황을 조사하여 다음 결과를 얻었다.

1. 다리, 가슴육의 잔류상황은 비슷하고 양자간에 잔류치의 차이는 없었다.
2. 신장은 잔류치가 제일 높고 투여후 15일간 경과하여도 검출되었다.
3. 간장은 신장과 동일하게 최종시험일까지 검출되었다.
4. 혈청은 투여후 8일째까지는 신장 다음으로 높은 잔류치를 보였으나 최종일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5. 지방은 제일 낮은 잔류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항생물질 투여군에서는 2주간을 경과하여도 신장과 식용으로 이용하는 간, 근육에까지 잔류가 인정되기 때문에 육용계의 항생물질 투여는 신중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AH. 94. 9)

#### □ 산란계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증

나가사끼 중앙가축보건위생시험소가 병성감정 연수협의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산란계 1,000수를 사양하는 농장에서 94년 1월부터 산란율 저하와 난각이 약해지고 깃털이 윤기가 없는 상태를 보이는 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해부소견으로는 난추, 복막염, 소장점막의 충출혈을 보이고 조직

검사에서는 소장점막 고유층에 림파구 침윤, 간그리손초 림파구 침윤, 비장에 림파구 감소, 난소에 위호산구와 마크로파지 침윤과 더불어 세균덩어리를 동반한 림파구 침윤이 보이며 이상 난포, 폐 2차 기관지의 점막 고유층에 림파구 침윤이 보였다.

세균검사에서는 주요 장기, 수난관, 난황, 맹장 내용과 발생계사의 깔짚에서 살모넬라균이 분리되었고 혈청형별 검사결과 분리균은 살모넬라 엔터리티디스로 동정하였다.

이상의 성적으로 본 질병은 살모넬라증이라고 진단하고 전염성 기관지염 또는 마이코플라즈마증에 의한 산란저하, 난각이상과 관련되는 것도 의심하였으나 기관병변에서 마이코플라즈마의 관련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AH. 94. 9)

## □ 15일령추에서 발생한 류코싸이토준병

구마모도현 중앙가축위생시험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산란계 1,500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93년 7월 20일, 2일령에 570수를 구입한 초생추가 14일령부터 녹색변, 침울, 신경증상을 보이고 8월 13일까지 156수가 사망하였다.

특징적인 해부소견은 피하, 간장, 신장에 점상출혈, 뇌에 출혈이 보였다. 기타 신장의 종대, 휘브리셔스낭의 종대, 녹색변이 보였다. 병리조직검사에서는 뇌, 폐, 간장, 비장, 신장, 소화장관, 휘브리셔스낭에 류코싸이토준원충이 다수 검출되었다.

세균검사에서는 실질장기에서 대장균이 분리되었다. 조직소견에서는 실질장기 내에 다수의

류코싸이토준원충이 검출되어 류코싸이토준병으로 진단하고 대장균증의 관련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AH. 94. 9)

## □ 1993년의 전염성 기관지염의 바이러스형별

후구오까현의 중앙가축위생시험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1993년에 4건(A~D건)의 IB발생을 접수하고 IB바이러스에 대한 단크론 항체를 이용한 형광항체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4건 모두 기관에 특이항원이 검출되었다.

바이러스분리에서는 가검물 기관유제를 접종한 C예(초대)와 D예(2대계대)에서 계태아가 비꼬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 2건(C, D예)의 분리주와 1990년대에 분리한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제한효소 절단에 의한 유전자형별의 비교를 일생연에 의뢰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신장형이 강하게 의심되는 분리주는 Y-4주로 동정하고 D예의 분리주는 C-78주라고 동정하였다.

C예의 분리주는 백신주와 각 혈청형 대표주를 포함한 모든것과 다른 절단형식을 표시하여 새로운 형태의 IB바이러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1993년에는 기존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와 형별이 다른 새로운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기존 바이러스주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등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AH 94. 9)